

1/17(월) 출애굽기 1-4장 왜 머뭇거리는가?

하나님은 기근의 때에 언약 백성을 보존하셨습니다.

요셉을 먼저 보내시고, 이스라엘의 아들들로 입애굽 하게 하셨습니다.

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강한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(1:7).

하나님은 400여년이 지나는 동안에도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.

그러나 이스라엘은 신실하지 않았습니다.

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(1:17),

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잊고, 이집트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(수24:14).

반드시 돌아가야 할 <약속의 땅>도 기억 속에 희미해 졌습니다.

하나님은 출애굽을 위해 ‘모세’를 선택하십니다.

그는 과거의 상처, 현재의 초라한 모습 때문에 머뭇거립니다.

더구나 그는 요셉 자손도 유다 자손도 아닌 레위 자손이었습니다(2:1, 6:14-27).

야곱의 유언으로 보전대 레위출신 지도자가 환영받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(49:5-6).

가뜩이나 지도자 트라우마가 있던 모세로서는(2:14),

무슨 명분으로 설 수 있을까 망설여졌을 것입니다.

가정배경, 과거에 대한 편견과 상처가 하나님을 막을 수 없습니다.

하나님은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고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(4:8-17).

상처와 편견을 넘게 하였고 결국 하나님의 종, 지도자가 되게 하십니다(신34:9-12).

레위의 자손들 역시 제 자리와 해야 할 일을 마련해 주십니다(민3장).

오늘 본문을 읽으며 엄혹한 때에도, 백성들의 배신에도 불구하고

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,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보십시오.

또한 모세의 출생, 성장과 성숙의 배경들을 살펴보며 통독해 보십시오.

하나님의 종, 지도자로 부름 받았을 때 모세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까요?

어떤 내적 갈등과 장애물들이 있었을까요? 헤아리며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.

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?

- ❶ 부르심에 선뜻 응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?
- ❷ 나를 머뭇거리게 하는 과거의 상처 혹은 출신과 배경들이 있습니까?
- ❸ 현재의 상황, 능력이나 은사의 부족함으로 머뭇거리고 있습니까?

시작기도 + 통독 출애굽기 1-4장 (16:30)